

한일 언론 노동자 공동 성명

동아시아 언론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콩 정부에 항의

홍콩에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홍콩 정부에 의해 탄압되어있다.

홍콩 정부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에게 실탄을 쏘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고있다. 경관대가 대학 구내에 돌입 해 시위를 진압하고 학생을 구속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사상자도 나오고있다. 쉼 鄭月 - 아 대통령은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고 시위에 의한 파괴 행위 나 교통 방해 등을 비난하고 있지만, 구의회 선거에서 일부 민주 활동가의 입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파 의원을 체포 · 기소하고있다. 시민에 의한 민주적 인 의견 표명의 기회를 탄압하면서 시위만큼 혼란의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홍콩 정부는 즉각 시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평화적인 대화의 노력을 거듭한다.

원래의 발단은 홍콩 정부가 형사 사건의 용의자를 중국에 넘겨주는 방법을 포장 “도망 범 조례”의 개정에 踏み切ろう려고 한 것이다. 일당 독재 중국 정부가 인권 억압에 사용하고있는 사법 제도가 홍콩에 유입되는 사태에 抗い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홍콩 시민들은 시위 등으로

필사적으로 호소하고있다. 그 호소는 보편적 인 것이며,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의 행동을 힘으로 누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홍콩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 박근혜 정권에서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미디어 노동자들이 기소되는 등의 탄압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에서 오키나와에서 미군 시설 건설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장기간 구금되거나 시민의 강제 추방을 취재중인 기자가 구속되거나 할 수 있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미디어 노동자는 모든 보도에서 사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본분을 지키고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고있다.

양국의 미디어 노동자가 힘을 합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갈 것을 여기에 맹세한다.

2019 년 11 월 25 일

한국 언론 노조

일본 언론 문화 정보 노조 회의

日韓言論労働者共同声明

東アジアの言論・表現の自由を守るため 市民の自由を弾圧する香港政府に抗議する

香港において、基本的人権の尊重と民主化を求める市民の行動が、香港政府によって弾圧されている。

香港政府は、武器を持っていない市民に対し、実弾を撃つという異常な行為を繰り返している。警官隊が大学構内に突入してデモ活動を鎮圧し、学生を身柄拘束する事態も起きた。死傷者も出ている。市民による民主的な意見表明の機会を剝奪しながら、抗議活動だけに混乱の責任を押しつけるのは不公正である。香港政府は即刻、市民に対する暴力をやめ、市民との平和的な対話の努力を重ねるべきだ。

そもその発端は、香港政府が刑事事件の容疑者を中国本土に引き渡すことに道を開く「逃亡犯条例」の改訂に踏み切ろうとしたことだ。一党独裁の中国政府が人権抑圧に使っている司法制度が香港に入り込む事態に抗い、市民の人権と自由を守るため、香港市民はデモなどで必死に訴えている。その訴え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香港政府と中国政府が、香港市民の行動を力で押さえつけることは決して許されない。

香港で起きている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

韓国では李明博・朴槿恵政権において、「公正な報道」を求めるメディア労働者が起訴されるなどの弾圧が行われた。日本でも安倍政権において、沖縄で米軍施設建設に抗議する市民が長期間拘留されたり、市民の強制排除を取材中の記者が拘束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った。

私たち日韓両国のメディア労働者は、あらゆる報道で真実を追求するジャーナリズムの本分を守り、平和と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を目指している。両国のメディア労働者が力を合わせ、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言論の自由、表現の自由を守り抜いていくことをここに誓う。

2019年11月25日

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

全国言論労組